

Amiodarone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간질환 1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소화기병연구소, 병리학교실¹
이승철*, 한광협, 김용수, 최혜진, 박수진, 전재윤, 문영명, 박영년¹

Amiodarone은 class III 항부정맥 약물로 다양한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폐나 신경, 신장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간에서 흔하게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을 나타내나 드물게 간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간기능 이상은 amiodarone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15-80%에서 나타나며 가장 흔한 간 침범형태는 비알코올성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이며 15-50%에서 간경변증이 동반된다. 간기능 이상은 투약 후 1년이 지나 나타나기 시작하며 호발 시기는 2년후이다. 간종대와 황달등과 같은 만성 간질환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실 소견으로는 AST/ALT, 혈청 alkaline phosphatase 와 총 빌리루빈의 상승을 보인다. 간경변증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저알부민 혈증 및 prothrombin time 연장을 보일 수 있다. amiodarone은 다른 약물과는 달리 약물을 중단하여도 항상 간기능장애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연자 등은 심방세동으로 amiodarone을 복용하던 중 복부불편감 및 간기능이상을 보인 환자에서 간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amiodarone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간질환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6세 남환은 7년전 고혈압 및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정기적인 투약을 받던 환자로 외래 추적 관찰 중에 2개월간 지속된 복부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amiodarone(200 mg#1)은 2년 전부터 투약 받았으며 그 외 혈압약으로 amlodipine(5 mg#1)과 hydrochlorothiazide(12.5 mg#1)를 투약 받고 있었다. 음주력은 특이사항 없었다. 내원시 문진상 전신쇠약감 및 피로감, 복부불편감이 있었으며 신체검진상 공막에 황달은 없었고 간이 2횡지 촉진되었다. 혈액검사상 WBC 10,190/ μ L, hemoglobin 11.6 g/dL, platelet 217,000 / μ L이었으며 생화학검사상 총 단백/알부민 8.0/3.4 g/dL, 총 빌리루빈 1.8 mg/dL, AST/ALT 147/141 IU/L, alkaline phosphatase 292 IU/L, γ -GT 923 IU/L이었다. prothrombin time은 81%이었다. 간스캔상 간종대 소견 관찰되었으며 초음파상 경도의 지방간 소견외에 담도에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간조직검사상 portal, lobular fibrosis소견과 함께 Mallory bodies와 ballooning degeneration이 관찰되어 amiodarone에 의한 pseudoalcoholic liver disease로 진단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amiodarone은 계속 투약하였다. 추후 간기능 악화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중이다.

간흡충 진단에 있어 담즙을 기준으로 한 피내검사 및 방사선검사의 유용성 평가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내과 주광로*, 김병철, 윤태권, 김동인, 김대현, 김도하, 박능화, 박재후

간흡충증의 확진은 분변 또는 담즙에서 간흡충의 성충 또는 충란을 발견하는 것이다. 담즙을 이용한 검사는 분변이나 체액으로 회석되기 전의 검체(담즙)를 이용하므로 간흡충 진단의 가장 정확한 기생충학적 검사방법이다. 본 연구는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 또는 경피경간 담관조영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담즙 채취가 가능하였던 117명을 대상으로 담즙내 간흡충 충란 및 성충의 검출을 시도하였고, 이 담즙 결과를 기준으로 피내검사(intradermal test, 60 mm² 기준) 및 방사선검사의 진단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충란 양성률은 담즙과 분변에서 각각 33.3%와 5.3%였고, 피내검사 양성률은 33.0%였다.
- 2) 담즙검사를 기준으로 한 피내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55.6%와 77.0%였고, 초음파는 39.4%와 87.0%, CT는 36.1%와 78.7%, 그리고 담관조영술은 35.1%와 81.8%였다.
- 3) 검사법 상호간의 일치도(kappa 치)는 CT와 초음파에서는 0.750, CT와 담관조영술은 0.820, 담관조영술과 초음파는 0.831이었고, 피내검사와 이들 방사선검사와의 kappa 치는 0.293-0.372였다.
- 4) 담즙내 충란 양성인 환자에서 피내검사 수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 5) 피내검사의 기준치를 60 mm²에서 40 mm²로 할 경우 민감도는 81.5%, 특이도는 67.2%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간흡충 치료제가 널리 보급된 현재까지도 많은 환자가 간흡충에 감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피내검사를 포함한 방사선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특히 간흡충 유행지역에서의 진단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내검사의 경우 비록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위음성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기준치를 40 mm²로 할 경우 진단적 가치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